

조선대 산학협력 선도...지역 미래·혁신 이끈다

한화시스템과 협업,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유협업·교육혁신·기술혁신 바탕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 저탄소 녹색 부품소재·바이오헬스 등 집중 사업 효과 극대화

조선대학교가 지역 미래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산학협력 선도 대학으로서 임지를 굳히고 있다.

5일 조선대학교 LINC3.0사업단(단장 김충성)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 오현웅 교수 연구팀과 ㈜한화시스템의 협력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한 '2022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최우수상)을 받는 등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하 링크 3.0사업)은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재정 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선대가 링크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백년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선도 대학이라는 비전을 실천함과 동시에 KOREA TOP 20,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선정, 중장기적 산학협력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기술분야 등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 체계 개선에 힘쓰는 결과이기도 하다.

링크의 역사와 함께한 조선대학교는 2022년 새로운 도전 LINC3.0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모형(HYPER UIC-SRT)을 구축했다. HYPER는 '대전환 시대에 경계를 초월하여 조선대학교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담긴 추진전략이다. 이와 맞물려 링크 사업단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고속화 모델 UIC(UIC: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SRT(Sharing:공유협업, Revolution education:교육혁신, Technology 기술혁신)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 산학협력 선도 모형을 구축했다.

특히 조선대 링크 사업단은 산학연 기관 간 공유·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산업 동반 상승효과 창출, 산업계 및 지역기업과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수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소통하고 있다.

링크 사업단은 4대 특화분야인 바이오헬스·스마트(디지털)융복합·저탄소 녹색(그린)·인간중심 서비스 비즈니스 중심의 창의 융·복합 인재양성에 나서고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를 중심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다.

조선대 링크사업단은 교내외 다양한 공유협업 체계강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대학 인력양성사업단 간 융·복합 교육 협업 추진, 신산업 및 4차산업 선도하는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 대학 창의 자산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권역 대학 간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NOVA플랫폼을 구축하여 상



조선대학교 LINC3.0사업단이 2022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호컨설팅, 정보교류, 성과확산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조선대 링크사업단에는 대학 전체 70% 이상 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문사회·예체능분야 학과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링크사업단이 산학협력 교육의 대학 전체로의 확산의 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이공계열도 산학협력 교육에 참여가능한 산업계 주도형 '산학연 교과목 인증제'와 캡스톤디자인 연계형 '학과주도형 산학협력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의 이같은 노

력과 다양한 시도는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로의 변화와 위업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링크사업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4대 특화 분야를 집적화한 3개의 ICC(스마트(디지털)·수송기기, 저탄소 녹색 부품소재, 바이오헬스)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산학민관, 연구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ICC별 비전, 추진목표, 추진전략 등을 수립해 정량·정성적 성과달성에 힘쓰고 있다.

ICC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연구소는 기술

세부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ICC 참여 전임교원과 함께 기술 특성에 부합한 유형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BD)를 수행,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2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조선대를 대표하는 우수 사례다.

조선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지역의 산업체들과 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해 지역 미래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산학협력 선도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2023년은 전남교육 대전환 원년"

내년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교육자치·미래교육 역점 추진

전남교육청이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에 기반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선포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2023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갖고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통한 '전남교육 대전환 원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앞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의 기본 방향을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과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라는 학생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4대 교육지표를 중점과제·세부과제로 구체화하면서 당면 현안인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대전환 과제에 제시했다.

도 교육청은 이를 통해 주민직선 4기 출범 2년째인 2023년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내 고등학교 교장, 본청 및 사군 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과)장 200여 명을 대상으

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는 전남교육 유튜브채널 '전남교육TV'에 녹화·편집된 영상자료로 탑재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각 기관 및 각급 학교에 '2023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했으며, 홈페이지 기관소개와 업무포털 업무DB에 파일로 안내했다.

또 김대중 교육감과 김정희 정책국장, 백도현 교육국장, 박영수 행정국장 등 주요 간부들의 전남교육정책 설명으로 2023년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사전 온라인 시스템(패들렛)을 지난 21일부터 안내했다. 도 교육청은 온라인 시스템에 제시된 현장 제언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각 실·과 협의를 통해 2023년 정책 추진에 담아낼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며, 각급 학교 및 22개 사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2023 교육계획 수립 지원에 초점을 두고 준비했다. 도 교육청은 지역별 여건·특성과 각 기관의 교육비전이 반영된 교육계획을 통해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정희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은 "2023 전남교육은 기본을 찾는 미래교육, 전남 인재 선순환이 학교 현장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창업교육센터

창업동아리 챌린지 캠프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진 미래 창업가들의 성장을 위한 양질의 밑거름이 됐다.

동강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박 경우)는 최근 화순금호리조트에서 '2022 창업동아리 창업 챌린지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건축과, 방사선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작업치료과 등의 학과에서 20명이 참여해 1박2일간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실무 과정을 배웠다.

미래 창업가들은 팀 빌딩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가와 1:1 멘토링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창업 계획 수립과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을 지도받았다.

또 청년 CEO 성공사례 특강과 금융중재 해결을 위한 Q&A 창업 토크를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도 높였다.

아이템 경진대회에서는 응급구조과 팀이 '더 나은 공압 분무식 네블라이저의 개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일자리센터 '모의입사지원 경진대회'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입사서류 및 면접 준비를 통한 채용 프로세스 경험과 최신 채용 동향에 대한 취업 방향을 알려주는 '모의입사지원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의면접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모의면접 교육은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과 특강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어진 경진대회는 4인 1조 실전 모의면접을 통해 장점과 단점 등을 피드백하고 서류전형 10명과 면접 우수자 10명에 대한 시상으로 종료됐다.

노선식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재학생들이 입사서류와 면접 준비를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통한 준비된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